

# 광주 무용계 큰 별, 하늘로 '무대' 옮기다

### 무용계 대모 엄영자씨 별세 발레 창작·보급...2000여 제자 양성 초등4년때 무용 입문·이화여대 졸업

한국 무용계를 빛낸 수많은 무용수들을 길러낸 엄영자씨는 '광주 무용계의 대모'로 불린다. 평생을 발레 창작과 보급, 제자 양성에 바쳐온 그가 길러낸 제자는 대학교수와 중고교 교사 40명 등 2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제자 사랑이 남달랐던 그녀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꿈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풍요의 세상을, 찬란한 빛의 세상을 열어 주었다'는 존경을 받았다.

'광주 무용계의 큰별' 엄영자씨가 19일 오전 향년 8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엄 씨는 1940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해방과 함께 광주에 왔다. 서석초등학교 4학년 때 무용을 시작했고 광주여중 재학시절 무용계 1세대인 정병호(전 중앙대 교수), 이정자로부터 본격적으로 발레 수업을 받았다.

광주여고 2학년 때인 1958년 이화여대공무에서 '빈사의 백조'로 외국무용 1등상을 수상, 전국에 이름을 알린 그녀는 이를 계기로 이화여대 체육과에 입학해 박희선, 임성남(전 국립발레단장) 등으로부터 사사받은 후 발레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다. 이화여대 재학시절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전남지역대회)에 출전, 선을 수상한 배우 윤정희에 이어 미에 선정됐던 일화는 유명하다.

졸업과 함께 모교인 광주여고 무용교사를 시작으로 전남대학교, 전남체육고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호랑이 선생님이요 유명했던 그는 스파르타식 훈련으로 제자를 키웠고 일요일 연습은 기본, 콩쿠르를 앞둔 방학 때면 운동선수들처럼 합숙훈련에 들어갔다고 했다.

광주에서 교사로 재직중 경희대 김백봉, 안재승 교수의 제의를 받아 경희대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녀는 1973년 엄영자무용학원의 전신인 라라무용학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무용학원을 운영했다.

그는 평생을 창작발레 지도자로 활동하며 발레발전에 공헌했다. 무엇보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김화숙(원광대 명예교수), 김선희



2018년 스승의날 모인 엄영자씨와 제자들. 앞줄 왼쪽부터 신정희(경성대 교수)·김정숙(가톨릭대 교수)·엄영자·김화숙(원광대 명예교수), 뒷줄 왼쪽부터 박경숙(광주여대 교수)·김선희(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 광주무용원 회장·한국발레협 부회장 한국발레협회 대상·공로상 등 수상 제자들 '엄댄스루트' 결성 뜻 이어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박경숙(광주여대 교수), 윤숙자(이화여대 교수), 박준희(조선대 교수), 서차영(전 세종대 교수), 신정희(경성대 명예교수), 김인숙(전남대 교수), 정희자(광주교육대 교수), 문영철·박미정·김남식(한양대 교수) 송정희(경희대 교수) 등이 그들이다.

엄 씨는 안무자로 참여해 이화여대 무용공쿠르에서 내리 6년 종합우승하는 기록을 세웠고, 입시 때마다 서울 유명대학에 제자들을 줄줄이 입학시켰다. 뛰어난 발레리나였던 엄 씨는 특히 창작무용부문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으며 1967년 제 1회 엄영자 무용발표회를 시작으로 10회의 개인 발표회와 1500여 편의 창작 발레 안무와 연출을 했다.

또 1963년 한국창작발레 '심정전'은 최초의 안무이기도 했지만 작품성에서 큰 인정을 받았고 이후 창작 발레 '심정'을 비롯해 '초혼', '추억', '춤의 만남', '운명', '빛고를 아다지오'와 1995년 제 1회 광

주비엔날레 전야제 축하공연 작품인 '불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전국학생연극제, 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경희대 등 각종 무용콩쿠르에서 안무상 및 지도상을 수상했다. 또 제5회 호남예술제 '백조의 호수' 특상, 안무상을 수상했고 이후 (사)한국발레협회 공로상, 전라남도 문화예술상, (사)한국발레협회 대상을 수상했다.

2001년은 그의 인생에서 특히 중요한 해로 기억된다. (사)한국발레협회 광주·전남지부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돼 활동하며 지역발레 활성화에 기여했고 자신의 발레인생 40년을 갈무리하는 기념공연을 가졌다. 무엇보다 전국 200여명의 제자들이 자신의 발레세계를 추구하는 모임 '엄댄스루트(UDR)'를 결성한 점은 의미있었다. 엄 씨는 또 10회의 엄영자무용페스티벌을 개최, 지역발레 활성화에 기여했고 광주교도소와 군부대 위문공연 등을 통해 이웃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다.

현재 국립현대무용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화숙 원광대 명예교수는 엄 씨를 '광주 무용계의 별'이라고 기억했다.

"국내 무용계에서 제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신 분이예요. 엄선생님의 제자사랑은 유명하죠.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인간적이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많이 따르지 않나 싶어요. '엄영자 선생님의 춤을 뿌리로 한다'는 의미의 '엄댄스루트'를 결성했는데 지난해 스승의 날까지만해도 매년 선생님께와 함께 모임을 했었어요. 올해도 당연히 스승의날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김기만·김리희 등 세계적인 스타를 길러낸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는 "선생님이랑 이번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입원 몇주만에 갑작스레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며 "선생님께서 무용의 뿌리를 내려주시고 줄기를 키워주신 덕에 제가 잘 성장해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엄 씨의 유족으로 아들 이상우씨가 있으며 빈소는 조선대병원장례식장에 마련돼있다. 발인은 21일 오전8시30분.

/\*전문의 기자 ej621@kwangju.co.kr

## ACC, 아시아 이야기 담은 어린이 공연 공모

### 4월 20일까지 이메일 접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어린이 공연 제작 공모를 진행한다.

아시아문화원(ACI)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2020 ACC 아시아스토리 어린이 콘텐츠 제작 공모'는 우수 창작팀을 선발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콘텐츠는 환경과 평화, 인권 등 동시대적 메시지나 아시아 신화, 전설, 민담 등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내용이면 된다.

대상은 어린이 공연을 개발·제작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모두 4개 팀(창작자)을 모집한다. 연극과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복합장르) 등 장르 제한은 없다.

ACC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PT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된 팀에겐 2500만원의 개발비와 출연료를 지원한다. 완성된 작품은 9월 중 시범공연, 내년엔 ACC 어린이극장 정규 프로그램에 편성돼 무대에 오른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작자(단체)는 오는 4월 20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AC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 콘텐츠 제작 공모 사업은 지난해 아시아 이야기 그림책을 바탕으로 공연 창·제작을 시작, 총 10편의 공연을 선보였다. 지난해 제 12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2019 공연 베스트 7선정('보야아르의 노래'), 제28회 서울어린이연극상 3관왕('우산도둑') 등 각종 상을 휩쓸면서 ACC 창·제작 공연 사업의 결실로 자리매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난해 해외 관객이 가장 사랑한 국내 콘서트는

## BTS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파이널



지난해 해외 관객이 가장 사랑한 국내 콘서트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파이널로 나타났다.

해외 관객 대상 국내 공연 티켓 판매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는데, 특히 콘서트 장르 증가 폭이 컸다. 장르별로는 영어권·중국어권 관객이 콘서트를, 일본인은 뮤지컬을 선호했다.

인터파크는 영문·중문·일문으로 운영 중인 글로벌사이트에서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판매된 티켓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티켓 판매금액 기준 비중은 영어(40.5%), 일본어(38.1%), 중국어(21.3%) 관객 순이었다. 지출 비용은 영어 관객 58.8%, 일본어 관객 20.6%, 중국어 관객 22.2% 증가했다.

BTS 월드투어 파이널이 해외 팬에게 가장 사랑받은 가운데 영어권 관객은 '에이비식스(AB6IX)' '뉴이스트' '트와이스' 콘서트를, 일본인은 '2PM 준호' '신화' '김현중' 콘서트를 좋아했다. 중국어권에서는 '신화'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았고, HOT '장우혁'과 워너원 출신 '김재환'이 큰 사랑을 받았다. 뮤지컬 장르에서는 아이돌 출신이나 한류 드라마로 인지도가 높은 배우가 출연한 '신홍무관학교' '귀환' '엑스칼리버' '마리 앙투아네트' '그날들이 판매 상위권에 올랐다.

영어권 관객은 '2019 푸에르토리코 웨이리인 서울'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를 선호했고, 김준수와 세븐틴 도겸이 출연한 '엑스칼리버'는 일본인 관객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다. /연합뉴스

### 출판문화협, 코로나19 확진자 기증도서 1만3천여권 기부받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지원 도서기증 캠페인'이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약 1천 중, 1만3천 권에 달하는 책이 담겨져 충분한 수량이 확보됐다.

참여 출판사는 문학동네, 문학세계사, 민음사, 한길사 등 83개 사로 기증 도서는 '나미야잡

희점의 기적', '쇼코의 미소' '위대한 개츠비', '데미안' '말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등 문헌서를 비롯해 다양하다.

기증된 책들은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 분류·포장한 뒤, 품품기증처 배송을 거쳐 치료 중인 코로나19 경증환자 약 33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